

# 강정호 MLB 첫 만루홈런…亞 최고 거포 넘본다



피츠버그 강정호가 9일(현지시간)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서 열린 미프로야구 신시내티 레즈와의 경기에서 6회초 1사 만루에서 좌측팬스를 넘어가는 만루홈런을 날린 뒤 홈에서 동료들의 환호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 시즌 15호…마쓰이 데뷔 첫해 16개 기록

## NL 신인왕 경쟁 점입가경…팀 5-4 승리

‘강강’ 강정호(28·피츠버그 파이어리츠)가 시즌 15호 홈런을 메이저리그 데뷔 첫 만루홈런으로 장식했다. 메이저리그 첫해 홈런을 딱 15개만 때리겠다고 말했던 강정호는 그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며 이제 아시아 최고의 거포로 꼽히는 마쓰이 히데키를 넘어설 준비를 하고 있다.

강정호는 10일(한국시간) 신시내티 레즈와의 방문경기에서 5번 타자 3루수로 선발 출전해 1-1로 맞선 6회초 1사 만루에서 신시내티 오른손 선발 케이아스 샘슨의 시속 150km짜리 직구를 통타해 왼쪽 담장을 크게 넘어가는 만루홈런으로 연결했다.

강정호는 주자 없는 상황에서 들어선 3번의 타석에서 모두 범타로 물러났지만 가장 긴장감 넘치는 순간에 결정적인 장면을 연출했다. 강정호가 쳐낸 만루포는 결승타로 기록됐다. 피츠버그는 동점 상황에서 터진 강정호의 만루홈런 덕에 5-4로 승리했다.

이 홈런은 강정호가 메이저리그 무대에서 기록한 첫 만루홈런이다. 강정호는 한국에서 139개의 홈런을 쳤는데 이중 4개가 만루포였다. 이 홈런은 피츠버그의 올 시즌 첫 만루포이기도 했다.

전반기 72경기에서 홈런 4개를 쳤던 강정호는 후반기 47경기에서 벌써 11개의 홈런을 때려냈다.

강정호는 이 홈런으로 역시 후반기 들어 홈런 11개를 쳐낸 신인왕 경쟁자 크리스 브라이언트(시카고 컵스)와 동률을 이뤘다. 피츠버그가 24경기를 남긴 상황에서 강정호의 현재 페이스라면 일본프로야구를 대표하는 거포였던 마쓰이의 메이저리그 첫 시즌 홈런 수를 무난히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마쓰이는 뉴욕 양키스에서 뛴 첫 시즌인 2003년에 타율 0.287에 16홈런 106타점을 남겼다. 시즌 시작부터 중심타선에 배치된 마쓰이와 비교하면 강정호의 타점(56개)은 크게 뒤처지지만 타율(0.287)은 똑같고 홈런 페이스는 마쓰이를 추월했다. 이제 마쓰이와의 격차는 불과 1개. 강정호는 마쓰이를 넘어 아시아인 메이저리그 데뷔 첫 시즌 최다 홈런까지 넘본다.

아시아인 메이저리그 데뷔 첫 시즌 홈런 역대 1위는 포수 조지마 겐지로 시애틀 매리너스 데뷔 시즌이던 2006년에 홈런 18

개를 터뜨렸다. 강정호는 수비 부담이 가장 큰 포지션으로 꼽히는 유격수를 소화하면서 이 같은 성적을 내고 있어 그 가치는 더욱 크다.

아시아 출신 내야수가 메이저리그 첫해 가장 많은 홈런을 친 건 2005년 시카고 화이트삭스에서 데뷔한 2루수 이구치 다다히토가 기록한 15개였다.

피츠버그에서 성공 시대를 열어가는 강정호는 내셔널리그 신인왕 경쟁에 다시 불을 지핀 것은 물론 아시아인 데뷔 시즌 최다 홈런 기록까지 정조준하고 있다. /연합뉴스

## KIA 리빌딩 실험 계속된다

‘호랑이 군단’의 56번째 선수가 등장했다. 리빌딩 시즌의 실험과 도전은 계속된다.

KIA 김기태 감독은 지난 8일 엔트리 변동 사항에 대해 언급하면서 “잘 모르는 선수일 텐데 신인인 좌완 김명찬이 등록된다. 올해 많은 선수가 등록됐다. 좋은 건지, 나쁜 건지”라며 웃었다. 여운이 있는 웃음이었다.

올 시즌 KIA의 1군 엔트리에 이름을 올린 선수는 대졸 신인 김명찬을 포함해 총 56명이다.

강팀일수록 엔트리 변동 폭이 적지만 KIA는 올 시즌 내내 엔트리 변동이 있었다. 56명이나 1군에서 뛰었다는 것은 그만큼 전력에 불안정하다는 의미이다.

고향팀에서 새출발을 하게 된 김 감독에게 주어진 첫 숙제는 리빌딩이다. 그러나 예상 밖 선전으로 5강 싸움을 하게 되면서 성적과 미래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쫓고 있다.

김 감독은 많은 선수를 보면서 남은 시즌 싸움을 위한 최적의 조합을 찾고, 미래에 대한 큰 틀까지 그리고 있다.

새로운 조각으로 좌완 김명찬이 짝꿍 등장했다. 지난 8일 NC와의 경기에서 프로 데뷔전을 치른 김명찬은 프로 첫 기록을 탈삼진으로 썼다. 2이닝 1피안타 1사사구

### 56번째 선수 김명찬 1군 등록

### NC 데뷔전 2이닝 무실점

### 큰 키서 내리쬘는 직구 일품

### 홍건희·유창식·한승혁 이어

### 마운드 92년생 테스트 가세

### 데뷔 첫승 임기준·심동섭과

### 새로운 좌완 라인 구성

2탈삼진 무실점. 마무리 캠프에서부터 구위 좋은 선수로 주목받았지만 제구가 문제였다. 그러나 이날은 본인 스스로 “나도 신기했다”고 말할 정도로 깔끔한 제구와 침착한 모습을 보이며 눈길을 끌었다.

김명찬의 등장으로 마운드 92라인과 좌완라인의 새로운 테스트가 시작됐다.

92라인은 KIA 마운드의 미래를 쥐고 있는 중심이다. 선발과 롭릴리프 역할을 한 우완 홍건희와 좌완 유창식, 최고 스피

드 한승혁, 사이드암 박준표에 김명찬까지 92라인에 들어섰다.

고민 많은 좌완 라인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임기준이 선발 첫 승을 거두며 선발 로테이션으로 자리를 옮긴 상황에서 절정의 컨디션을 보이고 있는 심동섭과 신에 김명찬이 새로운 좌완 라인을 구성했다. 이제 막 결음을 댔 경험 부족의 신인이라는 점이 큰 변수지만 남은 시즌 구상의 폭은 넓어졌다.

김명찬의 주무기는 187cm의 큰 키에서 내리쬘는 직구다. 흔히 ‘볼 끝이 지저분하다’고 말하는 유형의 투수다. 첫 등판에서 직구 최고 구속은 143km를 기록했지만 그 이상의 힘이 있었던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김명찬은 “시즌 중반에 어깨가 좋지 않아서 많은 경기를 못 뛰었지만 캠프도 다 소화했고, 1군에 오고 싶은 마음이 컸다. 처음에는 1군 훈련 합류인 줄 알고 왔는데 바로 등록이 되고 경기를 해서 긴장도 없고 신기했다”며 “승혁이나 준표 등 친구들이 많이 알려주고 도와준다. 친구들이 많아서 도움이 되고 편하다. 직구가 자신 있다. 볼넷 안 주고 자신있게 내 공을 던지면서 시즌 끝까지 1군에서 보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김명찬

## 마제스틱 코리아

## 내일 브랜드데이

### 양현종·윤석민 팬사인회 등

KIA 타이거즈가 12일 선수단 용품 공식 후원사인 ‘마제스틱 코리아’의 브랜드데이를 연다.

이번 행사는 12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의 경기에서 진행되며 KIA 타이거즈와 마제스틱 코리아는 팬사인회와 디지털 포토존 이벤트, 다양한 경품 이벤트를 벌인다.

사인회에는 투수 윤석민과 양현종이 참가하며, 오후 4시부터 중앙출입구 앞에서 20분 동안 개최된다. 이날 경기의 시구와 시타는 KIA 선수단과 응원단이 사전 투표를 통해 직접 선정한 팬 2명(마제스틱 올 뉴 플레이어)이 할 예정이다.

또 이날 하루 동안 챔피언스필드 5번 출입구에 위치한 마제스틱 클럽하우스 스토어와 온라인몰 라커룸(www.locker-room.co.kr)에서는 모든 선수용 상품을 20% 할인된 금액에 구매할 수 있다.

행사의 자세한 내용은 마제스틱 코리아 페이스북(www.facebook.com/majesticstickkorea)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